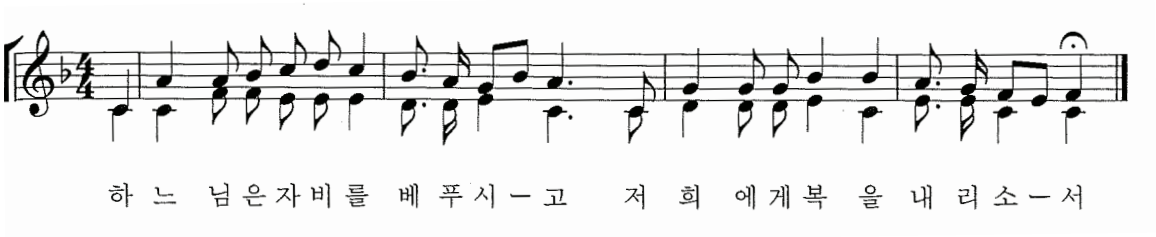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신부 : 이효언(펠릭스) (felixlhu@yahoo.com) • 보좌 신부 : 이중헌(요셉) (joonghun78@hanmail.net)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44 평화를 주옵소서
제 1독서 : 민수기 6,22-27
화 답 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 2독서 : 갈라티아서 4,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
복 음 : 루카 2,16-21
봉헌성가 : 217 정성 어린 우리 제물 340 봉헌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성체성가 : 500 평화의 하느님 163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 256 천상의 어머니

전례 봉사자

일 시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 사	성체 분배	다과 봉사
12월 31일(목) 8시	김도호	박숙		이태영 이재욱 김희서 이재풍	김석현 김근회	
1월 1일(금) 7시	김현직	이철규	김정애	조영진 조봄이	나선호	레지오
10시	김항규	김근회	김미해	김명준 이 규 신승우 이한나 홍유진	한진수 이규선 강남운	마리에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송년미사	연	김창진(미카엘)	주민정	영원한 안식
	생	김멜라니아 수녀님	박순자	영명축일 축하
		김도호(시메몬), 이지숙(데레사)	강호신	가정 축복, 건강
		강경숙(멜라니아)		영명축일, 영육간 건강
		성기병(비오) 가족	신안젤라	감사
7시	연	김광배(토마스)	김명주	영원한 안식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7시	연	박희영(요셉), 김문희	박글라라	영원한 안식
	생	성기병(비오) 가족	신안젤라	주님 축복, 은총
10시	연	김보필(요나단)	신유승 가족	영원한 안식
		여의준	신유승	
		송기태, 장주원, 이길순	송종석	
	생	신년 가정 축복 합동 기원 미사		

새해에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시길 ...

지난 한해 홀리 엔젤스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신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많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임 신부 : 이효언 펠릭스
보좌 신부 : 이중헌 요셉

2016년 제4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요약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15)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은총과 선물로 주시는 새해를 맞아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고통과 전염병, 자연재해에 따른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들의 자식들은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하느님을 닮은 부모처럼 존엄을 지닙니다. 형제자매는 다양성과 차이를 보여주고, 본질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형제애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가정을 키워나가는 데에 근본이 되는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현실적으로 형제애를 끊어버리고 훼손시키는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날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이전부터 인간을 노예로 삼는 현상이 있어왔습니다. 국제공동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린이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에서조차도 가사 노동, 농업, 제조업이나 광업에서 많은 이들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생활과 노동의 조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굶주림을 겪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재산을 빼앗기고 육체적, 성적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많은 여성들이 강제혼인과 정략결혼에 시달립니다. 장기적출, 강제 징집, 구걸, 마약의 생산과 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 국제적인 위장 입양을 위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성인들도 있습니다. 테러 집단에 납치되고 구금되어 이용당하는 이들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예살이의 원인은 빈곤과 교육기회의 부재, 부족한 일자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부패, 무력 분쟁, 폭력, 범죄, 테러입니다.

노예살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도회들이 피해자들을 돕고, 재활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법들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간 기구들은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협력하고,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근로 조건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이 누구이든 그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무관심과 경제적 이유로 눈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네 형제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대와 형제애의 세계화를 위한 일꾼이 되어 그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고, 용기 있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